

# ‘14년만의 정규음반’ 가수 별 “20대의 저를 위로하고 싶어요”

정규 6집 ‘스타트레일’ 발매...데뷔 20주년 기념 ‘12월32일’로 데뷔...JYP서 ‘기상청 남매’로 주목

노래는 체형이다. 가수 별(40·김고은)이 11일 오후 6시 발매하는 정규 6집 ‘스타트레일(Startrail)’로 증명하는 사실이다. 열아홉 살이던 2002년 10월 ‘12월32일’로 데뷔한 별은 당시 JYP엔터테인먼트에서 비·노을과 함께 ‘기상청 남매’로 불리며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그런데 어느덧 세 아이의 엄마이자 불혹이 됐고 지난해 데뷔 20주년을 보냈다. 작년엔 막내딸 송이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희소병 길랑-바레 증후군을 앓다가 완치 판정을 받는 등 우여곡절의 삶도 동시에 살아왔다.

타이틀곡 ‘오후’(브라운 아이드 소울 영준·전홍준 작사·작곡), 서브 타이틀곡 ‘유어(You're)’(박희수 작사·작곡) 등 1000곡 중 엄선한 10곡이 실린 이번 음반엔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다.

‘별의 궤적’이라는 음반 제목의 뜻처럼 별이 그려온 지난 20년 궤적의 체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려보는 미래가 풍성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수험생 때 공부한 거 생각나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차에서 영영 울었던 거 생각나요” 등 그녀의 노래를 듣고 쏟아내는 대중의 추억과 인생이 결코 우연이 아닌 이유다.

최근 흥대에서 만난 별은 “지금도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동생들과 후배들에게 메시지나 위로를 건낼 수 있는 언차와 연배가 됐으니, 도전이 되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그녀와 나눈 일문일답.

**-무려 14년 만의 정규 음반입니다.**

“요즘 정규 낸다는 게 무모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인데요. 제 가수 활동 20년 중 앞의 10년인 20대 때엔 정말 많은 활동을 했고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30대부터 10년은 노래를 아주 안 한 게 아니지만 욕아랑 가정에 충실한 상황 때문에 음악 활동이 저조했잖아요. 20주년 가수 명함을 내릴기에 면목이 안 서고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요. 그래서 20주년을 기념한다고 했을 때 싱글은 성에 안 찼죠. 그래서 회사에 ‘조심스럽

게 정규를 하고 싶다. (제작비는) 어떻게든 메워주겠다. 한번만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어요. 하하. 오랜 시간 곡 수집부터 녹음하는 기간 동안 집지가 없었는데 끝내놓고 나니까 팬들에게 당당하게 ‘이런 앨범을 만들었습니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게 돼 너무 뿌듯해요. 스스로에게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고,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언제부터 준비한 음반입니까?**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작년 10월 발매하는 것을 목표로 1년 반 정도 전부터 곡 수집을 했어요. 전 500~600곡 받았다고 기억하는데 1000곡이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중 엄선해서 리스트업을 한 만큼 자신 있는 앨범이 된 거 같아요.”

**-이번 앨범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은 무엇입니까?**

“(별하면 떠올릴 수 있는) 발라드뿐만 아니라 앨범은 아니에요. 가장 발라드 같은 곡이 ‘오후’이고 팝스럽거나 리드미컬하거나 그루브가 있는 곡도 있죠. 가사적인 부분에서도 제 나이와 깊게 말할 수 있는 것 등 다양해졌죠. 무엇보다 어느 트랙 하나 스킵하지 않고 듣고 싶은 10곡으로 채우고 싶어요. 타이틀도 미리 정해 놓은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까지 치열했는데 ‘오후’가 ‘그렇지 않게 별이지’라는 반가움을 안겨드릴 수 있는 곡이었던 거 같아요. 남편(래퍼 겸 방송인 하하)의 원픽이기도 했어요. 대중가수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음악과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다리는 음악 사이에서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숙제죠.”

**-직접 가사를 붙인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 노래한 ‘나이’(015B 정석원 작곡)는 예전이면 쓰지 못했을 노래 같아요.**

“데뷔 20주년이 되고 결혼한 지 10년이 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지금이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노래죠. ‘나는 어디에 있을까’ ‘거울 속 저 여잔 누굴까’라는 생각도 하

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내가 빛나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건 저를 보고 웃어주는 예쁜 제 아이와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 남편 덕분이지. ‘다시 태어나도 이 삶을 선택하겠어’, ‘너를 만나는 것이 선물이었다는 걸’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남편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처럼 됐어요. 남편은 수줍어하더라고요. 하하.”

**-‘이 삶을 선택하겠어’라고 얘기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 같아요.**

“사실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태어나서 겪은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어려운 일 같아요. 열심히 하면 대부분 잘할 수 있게 되는데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엄마가 돼서 처음 맞보는 자괴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 자라줬고 노래 가사처럼 힘들어하는 순간에도 날 보고 웃어주고... 제가 잘 하려고만 해서 더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직접 작사·작곡하신 ‘그때의 난’은 힘든 시간을 홀로 견뎠은 20대의 별 씨에게 위로 건네는 편지같은 곡이라고 하셨는데, 20대 때 중요했던 거랑 지금 중요한 거랑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막 데뷔를 하고 난 뒤 아버지가 아프셔서 20대가 힘들었어요. 비틀거리거나 방향하거나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스스로에게 체적질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의 난’ 같은 곡을 썼어요. 20대엔 저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질풍노도의 시기일 수 있죠. 저보다 인생을 먼저 산 선배들에게 위로를 받고 가르침도 받거나 할 수 있는 나인데 그렇게 못했어요. 혼자 잘난 줄 알고, 어른인 줄 알고 버텼는데 나이가 이렇게 되고 나서 그 때 제가 가졌었다고 위로 받았어도 됐고 기대어도 됐고 힘든 거 이야기해도 괜찮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그 때의 제가 딱하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 때의 저를 위로하고 싶어서 쓴 곡이에요. 건다는 것만 멋있고 어른스러운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라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지금의 저도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동생들과 후배들에게 메시지나 위로를 건낼 수 있는 언차와 연배가 됐으니 도전이 되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사



람이 되고 싶어요.”

**-최근 ‘킬링보이스’에도 출연하셨는데 과거의 곡을 불러본 소감은 어땠나요?**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앨범을 준비하면서 음원 사이트에 팬들이 달아주신 리뷰나 댓글을 봤거든요. 예전에 발매한 앨범에 최근 댓글이 달려 있는 걸 보고 ‘나를 잊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험생 때 공부한 거 생각나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차에서 영영 울었던 거 생각나요’ 같은 글들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제 노래가 누군가의 인생에 한 부분이 됐구나라는 생각이요. ‘킬링 보이스’ 댓글에도 그런 댓글이 많아 감동을 받았어요.”

**-데뷔곡 12월32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곡인가요?**

“감사한 곡이지. 이 곡을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도움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 이상의 것들을 보여주고 확장시켜 나

아가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고등학교 때 데뷔한 지 아시는데 그 때 나이가 스무살이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성인이었죠. 그런데 4집 때까지도 컴백할 때마다 ‘성숙한 여인이 돼서 돌아온 별’이라는 수식이 붙었어요. 어리고 소녀 이미지가 강하니까요. 제가 웃을 성숙하게 입거나 화장이 진하면 당시 소속사에 팬분들이 싫다고 전화를 걸기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나이를 먹잖아요. 그 때를 생각하면 수줍기도 해요.”

**-이번 음반이 가수로서 제2의 도약이 될 거 같은데 앞으로 가수로서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고 싶으신가요?**

“오래 오래 하고 싶어요. 동시대를 살아온 분들만 설득할 수 있는 가수가 아니라 어떤 연령대의 분들이 들어도 ‘목소리가 듣기 좋고 하는 이야기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나훈아 선배님, 인순이 선배님, 이문세 선배님처럼요. 특히 길을 닦아서 여가수의 생명력이 짧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 NCT 127 유타·정우·해찬 ‘에이요’ 티저 공개

신곡 3곡이 추가된 총 15곡으로 구성된 앨범

그룹 ‘엔시티 127(NCT 127)’의 유타·정우·해찬의 티저 이미지가 공개됐다. 1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날 0시 엔시티 127은 SNS 계정에 오는 30일 오후 6시 발매되는 정규 4집 리패키지 앨범 ‘에이요(Ay-Yo)’ 티저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티저 이미지는 감각적인 포즈와 강렬한 눈빛으로 유니크한 매력을 자아내는 유타·정우·해찬의 모습이 담겨 있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엔시티 127은 음반 발매에 앞서 미국 LA를 배경으로 각각의 개성과 본연의 매력이 돋보

이는 멤버별 티저 이미지를 순차 공개해 새 앨범에 대한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엔시티 127 정규 4집 리패키지 ‘에이요’는 동명의 타이틀 곡 ‘에이요(Ay-Yo)’를 비롯해 ‘디제이(DJ)’, ‘스카이스크레이퍼(Skyscraper(摩天樓·마천루))’ 신곡 3곡이 추가된 총 15곡으로 구성되어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 한편, 엔시티 127은 11일(미국 현지 시간) 미국 휴스턴에서 두 번째 월드 투어 ‘네오 시티 - 더 링크’의 북미미 추가공연을 개최한다.

## 송혜교의 ‘더 글로리’, 세계가 반했다...넷플릭스 TV 비영어권 랭킹 1위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전 세계 8248만 시간 시청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넷플릭스 TV 비영어권 부문 전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다. 11일 ‘넷플릭스 톱 10’에 따르면, ‘더 글로리’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시청 시간 8258만 시간을 기록했다. 7925만 시간을 기록한 ‘남부의 여왕 시즌 3’을 제치고 ‘TV 비영어권 부문’에 1위를 차지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집계한 순위에는 ‘더 글로리’가 2541만 시간을 기록하며 3위에 오른 바 있다. ‘더 글로리’는 지난해 12월30일에 공개돼 사흘치 시청 시간만 포함된 통계였다. ‘더 글로리’는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 등을 쓴 김은숙 작가가 극본을 맡고, 배우 송혜교가 주연했다.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당해 삶이 망가져버린 한 여성이 성인이 된 후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이야기가 그려졌다. 송혜교와 함께 임지연·염혜란·이도현 등이



출연했다.

## ‘헤어질 결심’ 골든글로브 불발...오스카 도전은 계속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골든글로브에서 상을 받지 못했다. ‘헤어질 결심’은 1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비벌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80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비영어 영화 작품상(Best Motion Picture - Non-English Language)

**‘아르헨티나, 1985’에 밀려 수상 못해**

부문 후보에 올랐으나 ‘아르헨티나, 1985’에 밀려 수상하지 못했다. 한국 콘텐츠는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같은 부문에서 상을 받고, 지난해 ‘오징어 게임’의 배우 오영수가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은 데 이어 ‘헤어질 결심’이 후보에 선정돼 3년 연속 수상을 노렸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헤어질 결심’은 박 감독이 2016년 ‘아가씨’ 이후 6년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한 중년 남성이 산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 ‘해준’과 죽은 남자의 아내 ‘서래’의 로맨스를 그렸다. 배우 박해일이 해준을, 탕웨이가 서래를 연기했다. 이 작품은 지난해 5월 칸국제 영화에서 감독상을 받았다. 영화제 상영 당시 전 세계 대부분 언론이 한목소리로 “결작”이라

고 평할 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내에선 지난해 6월 말 개봉해 189만명이 봤다. ‘헤어질 결심’을 제친 ‘아르헨티나, 1985’는 산티아고 미트레 감독이 연출했으며, 실제 역사에 기반한 만들어진 영화다. 1985년 아르헨티나를 배경으로 군사독재 정권이 끝난 뒤, 과거를 단죄하기 위해 나선 두 명의 검사와 정권의 희생된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위협 속에서 군사독재 정권의 범죄를 밝혀내 시대의 어둠 속에서 희생된 이들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는 모습이 담겼다. 박 감독은 골든글로브에서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오는 3월에 열리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계속 도전한다.